

완도군, 완도형 치유농업 확산 위한 선포식 개최

치유농업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목표

완도군에서는 지난 21일 '완도 치유농업 확산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치유와 치유농업을 연계한 완도형 치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완도형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치유 활동으로 정서 안정,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군에서는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장 육성 및 치유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농업인 단체, 주민, 전국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완도 치유농업연구회, 완도군 희망완도 SNS 기자단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완도 대표 치유농장인 '아내의 정원'에서 진행됐으며,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치유농업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알리고자 마련됐

다. '완도치유농업' 선포를 시작으로 완도 치유산업(해양·산림·농업) 홍보, 완도치유농업연구회의 치유농장 상품 홍보, 팜 파티 등이 진행됐다.

완도치유농업연구회(회장 김현희)에서는 완도에서 생산된 비파, 유자, 바나나, 블루베리, 삼지구엽초, 꽃차, 애플망고, 버섯, 치유 음식 등을 방문객들에게 설명하고 시식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선포식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농업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완도 자연그대로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체험과 농업과 건강을 연계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전국 치유농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 등 치유산



업의 핵심 요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면서 "완도형 치유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고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은 "의회에서도 치유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치

유농업은 단순한 농업 활동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면서 "치유농업과 더불어 치유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완도 치유농장과 연계한 치유 체험 문의 등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550-5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장선우 기자



곡성군, 귀농귀촌 꿈꾸는 예비 귀농귀촌인 위한

귀농산어촌 맛보기 행사 개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곡성군에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산어촌 맛보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예비 귀농인들이 곡성군의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 농업과 지역 문화, 특산물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귀농과 귀촌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얻으며, 곡성군의 농촌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귀농 선배 농가의 농업 체험이다. 곡성군의 대표작인 귀농 선배 농가인 임면 제월리 블루베리 농가(임준섭 농가)와 옥곡면 소룡리 유럽상추 농가(이수경 농가)를 방문하여, 참가자들은 실제 귀농 생활을 체험했다. 이들은 농작물 수확은

물론, 다양한 농업 작업을 직접 경험하며 귀농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곡성군의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농촌문화체험이다. 참가자들은 겸면 목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하며 특강과 상담이 진행되었고, 오산 오지봉권역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사과 재배교육과 두부, 비지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두부와 비지로 점심을 함께 나누며, 농촌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체험하였다.

곡성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예비 귀농인들은 농촌을 경험하고, 귀농 후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곡성/이정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 중이다.

이번 정책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은 덜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도록 공공요금 지원, TV광고 송출, 주말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영암군은 '착한가격업소 정비·발굴'에 나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외식업,

영암군, 소상공인 TV 광고, 주말 인건비 등 지원 나서

'착한가격업소'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주말 오픈 상가' 사업·지원 다채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정서와 표지판이 교부되며, 지방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홍보 지원사업'으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손님을

가게 가게를 알리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참여 소상공인 매장·브랜드의 30초 분량 무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연합뉴스TV' 'OCN' 'tvN' 'LG헬로비전' 등 방송에 송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영암군이 올해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추

진하는 '주말 오픈 상가 지원'은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주말 영업을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영암읍과 학산면 독천낙지거리의 음식점 13곳을 선별해 5~12월 동안 지정 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11시부터 저녁 8시,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해야 한다. 이밖에 영암군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시가 서천·마동 음악분수의 새단장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11곡에 달하는 신곡을 추가하는 한편, 수변무대 및 관람석 데크 등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한층 풍성하고 편안한 볼거리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서천은 고사분수 및 화염분수, 마동은 최대 75m 고사분수와 광양의 시화인 동백

광양시, 서천·마동 음악분수 새단장...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

신곡 추가하고 무대·관람석 보수 마쳐... 풍성하고 편안한 볼거리 기대

을 연상시키는 원형분수, 다양한 경관조명이 특징이다.

서천·마동 음악분수는 고운 선율과 색채, 시원한 물줄기로 10월 말까지 시민과 관광객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로맨틱

한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생일·졸업 축하, 프로포즈 등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워터스크린 무료 이벤트를 펼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광양시 문화관광 누리집 문화행사 코너 음악분수에 회원가입 후 문구와 사진 등을 첨부해 희망일 열흘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주간 3회(12:30, 13:30, 14:30), 야간 2회(20:00, 20:30)로 총 5회, 각각 20분씩 가동되며 매주 월요일과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광양/신현호 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26일 구례북초등학교 일원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먼저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구례군청, 구례경찰서,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구례북초등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보안관 등 5

구례군, 개학기 "아이먼저"어린이 안전 캠페인 실시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및 학교주변 위해요인 집중단속

개 기관 4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인쇄물과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위해 환경,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분야별 안전 점검도 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모든 면에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전 군민의 안전 보장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에 대해 전 군민이 보장되는 안전보험

진도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진도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54건, 7억 3,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25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작년과 동일한 40개 항목이며 그 중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골절 수술비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상해 42

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 5개 항목은 보장 금액을 각 10만 원씩 증액하여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에 문의·청구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정보는 재난보험 24(www.ins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